

## 영한번역에서 구조적 중의성의 처리 전략: 내포문 구성을 중심으로

원 은 하  
(신구대)

### 1. 서론

중의성(ambiguity)은 하나의 언어 기호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으로 언어 연구와 관련된 문헌들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때 하나의 언어 기호라 함은 음절에서 단어, 구문, 문장에 이르는 문법 단위를 포함하며, 의미도 지시적 의미에서 표현적 의미까지를 모두 아우른다. 이 개념의 기술과 연구 목적들은 그 맥락에 따라 서로 상이하러,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되는 반면(김수정 2000: 408) 심미적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로 다루어지기도 한다(Eco 1979: 263). 중의성은 크게 언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의어와 같이 표현 자체가 다양한 해석을 유발할 때 언어 내적 요인에 해당하며, 표현 자체는 중의성이 없지만 발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될 때 언

어 외적 요인에 의한 중의성이라 할 수 있다(윤평현 2008). 언어 내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중의성은 다시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으로 나눌 수 있다. 어휘적 중의성은 어휘의 의미 해석이 다양한 경우를 말하고 구조적 중의성은 문법 표지가 구문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로 해석되는 현상을 일컫는다(홍종선 2007: 243).

일반 번역 분야에서 중의성은 주로 원문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박시현 2001; 정해갑 2009)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다. 이들 연구는 원문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문의 언어 구조상 나타날 수 있는 중의적 표현들을 정리하고 있다. 번역가의 원문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중의성을 파악하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원문의 정확한 이해가 적절한 번역전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원문 이해 능력과 번역문의 가독성이 자동적으로 양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번역가들이 수긍하는 점이다. 원문의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 원문의 글쓰기 방식이 원문의 독자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관계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번역과정에서 사라진다(조성은 2009). 따라서 중의성의 문제를 원문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번역의 질을 절반밖에 보장하지 못한다. 중의성과 번역에 대한 연구들은 구문 분석 단계에서의 중의성 파악에 집중하는 반면, 구문 생성과 관련된 번역문 구조에는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의성을 해소해야 할 문제로 보고 번역문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의성 해소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효과를 위한 전략적인 중의적 표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는 내포문 유형을 중심으로 중의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원문보다는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에 집중하여 기술한다. 한국어의 내포절 중에서 주어와 없는 내포절은 읽는 과정에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오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해소할 번역 전략이 필요하다. 이 논의를 위하여 구조적 중의성과 구문 분석의 효율성과의 관계를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유형적 차이로 인하여 번역 과정에서 구조적 중의성이 있는 내포절이 생성되는 경우를 제시한다. 어순의 구성에 따라 문장 이해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점에 주목하고, 어순 변화와 통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여 문장의 가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번역 전략을 제시한다.

## 2. 구조적 중의성과 번역 문제

### 2.1 구조적 중의성의 해소와 구문 분석의 효율성

구조적 중의성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다<sup>1)</sup>. 첫째는 표지 기능의 중의성으로, 예를 들면 “그 정치가는 뇌물을 받았다”와 “정치가 힘들다”에서 ‘가’는 각각 접미사와 주격 조사로 사용된다. 영어에서는 현재분사와 동명사,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동일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는 구문 부착의 중의성이다. 부사어구나 전치사구 등의 수식관계나 주어와 서술어 등의 호응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표지나 구문이 잠재적으로 중의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구문 분석상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중의성이 있는지도 모른 채 특정한 방향으로 구문을 이해한다. 앞서 예를 든 “그 정치가는...”에서 ‘가’를 주격조사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주제격 조사가 뒤에 바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의성이 있는 어구는 앞뒤에 나타난 다른 어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의성이 해소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중의적 해석이 있는 표지 자체가 구문 분석의 문제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반면 어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중의적 표현이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 (1-2)는 구조적 중의성으로 인하여 구문 분석 과정에서 인지

1)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은 세분하는 정도가 문헌마다 상이하다. 윤평현(2008)에서는 수식관계,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 명사구와 동사구의 통사적 관계 등 단편적인 현상을 나열하고 있으며, Hirst(1987: 129-62)에서는 영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의성을 “attachment problem”, “gap finding and filling”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대략 표지 기능의 중의성과 구조 해석의 중의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홍종선 2007: 247) 본고에서는 유형상의 특성을 길게 논하지 않으므로 이 두 가지만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적 부담을 초래한다.

(1) The debris floated past the lighthouse sank.

(2) 그 운전사가 청소부를 설득한 건축가를 비판했다. (조명한 외 2004: 183)

(1)에서 밑줄 표기 부분은 처음에 서술어로 읽히지만 실제 서술어는 “sank”이다. (2)에서는 밑줄 표기 부분의 주어가 “그 운전사가”인 것으로 분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서로 인접한 어구들이 우연히 특정한 의미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구문 분석되었다가 나중에 수정하게 되는 현상을 일시적 중의성(local ambiguity), 혹은 길 혼동(garden-path) 현상이라 한다(조명한 외 2004: 182). (1-2)에서 밑줄친 부분은 중의성 발생지점이며 “sank”와 “건축가를”이 각각의 중의성 해소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중의성 해소지점에서 발생지점으로 되돌아가 구문 분석을 다시 하게 된다. 이러한 길 혼동 현상은 구문 분석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문장의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지점에서 올바르게 읽은 특정한 방향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경향은 효율성과 관련이 깊다. 선형적으로 입력되는 언어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문 분석은 즉시성의 원리(immediacy principle)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시성의 원리는 어떤 한 단어를 듣거나 읽는 즉시 단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단어의 의미 문장 내에서의 의미역 등을 결정하고 다음을 예측한다는 것이다(Just & Carpenter 1980).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적이므로 입력된 단어들을 즉시 명사구나 동사구 등의 덩어리로 분류하여 의미를 분석하면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조적 중의성이 있는 어구는 어휘 정보나 맥락 등의 별다른 정보가 없다면 그 앞의 어구와 가장 단순한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인 처리 전략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1-2)에서 “floated”와 “청소부를 설득한”을 각각 앞 단어의 서술어로 분석하게 되는데, 실제 문장 구조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므로 최초의 예측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시적 중의성은 번역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

다. 일시적 중의성은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구문 분석이 끝나면 사라진다. 그 결과 번역가가 되고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반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번역 텍스트를 별도의 사전 정보 없이 한 번 읽게 되므로 번역가가 자신의 글을 읽을 때보다 텍스트의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가가 무심코 일시적 중의성이 있는 문장을 만들어낸다면 중의성이 있는 지점에서 독자들이 길 혼동 현상을 겪게 되어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거나 오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가한다.

원문의 이해는 기본적인 번역 능력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반면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칠 수 있는데, 번역 텍스트의 가독성이 독자의 번역 텍스트 이해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려면 번역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중의성의 현상을 자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구문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일시적 중의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 2.2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의 관점에서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 등의 기능적 중의성이 빈번하며, 구문 생성 방향과 생략으로 인해 특정한 유형에서 구문 부착의 중의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원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조적 중의성이 번역과정에서 나타나 번역 텍스트의 가독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유형적 특성의 차이를 어순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중의성의 원인과 문제가 되는 구조의 유형을 살펴본다.

아래의 예문 (3)은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유형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영어와 한국어 문장으로 의미는 동일하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영한 번역 문제를 다루므로 영어 문장은 [ST]로, 한국어 문장은 [TT]로 표기하였다.

(3) [ST] John loves the girl [who is reading the book].  
 S1 V1 O1 [ S2 V2 O2 ]

[TT] 존이 [그 책을 읽고 있는] 소녀를 사랑한다.  
 S1 [ O2 V2 ] O1 V1

(3)의 [ST]와 [TT]는 어순의 관점에서 일관된 차이가 나타난다. 어순은 다양한 문법 구조들이 일정한 순서로 등장함을 나타낸다. 언어 유형적 관점에서 어순의 논의 대상은 개별 단어가 아니라 “통사 단위와 그것이 지배하는 성분 사이의 순서 사실” (임흥빈 2007: 71)이다. 따라서 어순의 논의 대상이 되는 어구는 문장의 기본 구성 성분인 주어(S)와 목적어(O), 동사(V)이다. 이들의 어순은 여섯 가지의 어순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기본 어순은 SOV와 SVO형이며,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어는 SOV 유형에, 영어는 SVO 유형에 속한다. <표1>은 (3)의 [ST]와 [TT]의 어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1>은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어순 변화의 세 가지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ST]가 [TT]로 전환되면서 조정된 어순을 살펴보면 영어와 한국어의 구문 생성 방향이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구문 생성의 방향은 한 구문 내에서 핵어(head)<sup>2)</sup>와 다른 구성 성분이 생성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ST] 영어	[TT] 한국어
서술어구의 어순	V1 - O1 V2 - O2	O1 - V1 O2 - V2
주절과 종속절의 어순	S1-V1 - [S2-V2]	S1 - [S2(O)-V2] - V1

<표 1> 영한 번역의 어순 변화

예를 들어 동사구에서의 핵어는 동사이고 그 외 동사구를 구성하는 목적어나 보어는 동사구의 구성 성분이 된다. 우선 [ST]의 서술어구의 어순을 보면,

2) 핵어(head)는 구문의 중심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명사구(NP)의 핵어는 명사이며 동사구(VP)의 핵어는 동사이다.

[V1-O1], [V2-O2]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핵어인 동사가 먼저 생성되고 동사에 딸린 목적어가 이후에 나타난다. 이렇게 구문의 구성 성분이 핵어의 오른쪽에 생성되는 구조를 우분지(right-branching) 구조라고 하며 영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한국어는 좌분지(left-branching) 구조로서 목적어와 같은 구성 성분이 핵어의 왼쪽에 생성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 결과 핵어는 구문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 [TT]의 서술어구도 모두 [O1-V1], [O2-V2]의 순서로 뒤바뀌어 있다. 절(clause)의 생성 방향도 두 언어는 다르게 나타난다. 주술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ST]에서는 [S1-V1 - [S2-V2]의 어순으로, 주절의 오른쪽에 종속절이 생성되어 있다. 반면 [TT]에서는 [S1-[S2(Ø)-V2]-V1]의 어순으로 바뀌어 종속절이 주절의 서술어 왼쪽에 생성되어 있다.

[ST]와 [TT]의 어순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어는 핵말(head-final) 언어<sup>3)</sup>라서 동사나 명사는 언제나 해당 구문의 마지막에 위치해야 하는 절대적인 고정 어순을 보여줄 수 있다(임흥빈 2007). 영어와 한국어의 이러한 구조상의 차이는 기본 어순과 구문 생성 방향의 관계를 다룬 스미스(Smith 1978)의 논의와 일치한다. 스미스는 영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구성 성분들이 등장하는 위치를 분석한 결과 VO 유형 언어의 구성 성분은 동사에 후행하고 OV 유형 언어의 구성 성분은 동사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VO 유형 언어는 목적어가 동사에 후행하므로 구성 성분이 동사에 뒤에 오게 되고, OV 유형 언어는 같은 이유로 반대 구성을 가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VO 유형과 OV 유형의 구성 성분 생성 방향을 비교하면 구성 성분들이 정 반대의 순서로 생성된다고 하여 거울 이미지(mirror-image)라고 부르며,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도 서로 거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인석 1991). 영한 번역의 경우 우분지 구조로 생성된 문장들을 좌분지 구조로 조정할 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문 생성 방향은 전치사/후치사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3) “head-final”은 어떤 구문의 핵어가 생성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동사구(VP)의 핵어는 동사인데, 동사는 늘 구문의 마지막에 생성되므로 한국어는 “head-final”의 특성을 가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좌분지 구문 생성을 하는 언어는 대체로 “head-final”의 속성을 가진다. “head-final”의 한국어 용어는 ‘핵말’, ‘핵어말’, ‘핵-끝머리’, ‘핵 후행’, ‘중심어 후행’ 등 학자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문에서는 “핵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로 VO 유형의 언어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OV 유형의 언어는 후치사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는 전치사가 발달했으며 보문소(complementizer)나 관계사 등도 해당 절의 앞에 위치한다. 한편 한국어는 격조사, 특수조사, 접속조사 등의 후치사가 발달하였으며 명사나 용언의 뒤에 위치한다. 영어의 전치사나 보문소는 새로운 구조의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한국어의 후치사는 구문의 끝을 구분해준다. (3)의 [ST]에서 S2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보문소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대명사를 읽게 되면 선행사를 주어로 하는 하위절이 시작될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3)의 [TT]에서는 관계대명사와 같이 종속절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는 따로 없으며 V2에 붙은 표지를 통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형용사절임을 파악하게 된다.

한편 격표시 방법에서도 두 언어는 차이를 보인다. 영어는 어순으로, 한국어는 표지를 통해 격을 표시한다. 이러한 특징은 어순 이동의 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어순이 고정적인 이유는 어순을 통해 격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인데, 순서가 바뀌면 논항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되므로 근간 성분의 어순 변화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반면 한국어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는 하지만 근간 성분의 자리바꿈이 가능한 자유 어순 언어에 속한다(임홍빈 2007: 54-5). 격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도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예를 들어 (3)의 [TT]는 “그 책을 읽고 있는 소녀를 존이 사랑한다”라고 쓰는 것도 올바른 문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성분 뒤섞기”는 이동이 가능한 범위에 제약이 따르며 동일한 절 이내에 서만 성분의 이동이 가능하고 이 범위를 넘나들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성기철 1992).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핵어의 위치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욱 엄격하게 지켜진다. 격표지의 유무는 문장성분의 생략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어는 격표지와 후치사가 발달되어 있어 문장성분이 생략되어도 그 역할의 혼동이 적다. 반면 영어는 어순이 문장성분의 역할을 좌우하므로 생략이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영한 번역문은 어순 구성의 차이와 생략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한 유형의 구조적 중의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주어가 생략되는 등의 이유로 내포절의 한 성분에 공백이 있는 경우 구문 분석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구조결정주의(structural determinism)<sup>4)</sup>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구

문 분석 원리를 연구한 서성기(Suh 1994)는 구조 형성 단계를 수정해야하는 재 분석이 인지적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는 길 혼동 현상을 발생시키는 한국어 문장들을 분석하면서<sup>5)</sup> 그 원인으로 절 올림(raising a constituent), 마디 삭제(node deletion), 선행관계 수정(retracting precedence relation)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중 절 올림 현상으로 인한 길 혼동 현상은 본문에서 다룬 내포절의 일시적 중의성 설명에 용이하므로 그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절 올림은 수형도의 상하 구조에서 하위에 있던 마디가 상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지배관계의 수정을 야기하여 길 혼동 현상을 초래한다. 즉 한국어의 경우 내포절에 속한다고 판단했던 요소를 다시 주절의 성분으로 재분석해야 할 때 인지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4)<sup>6)</sup>에 나타난 구문 분석 과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4) 존이 그 책을 읽고 있던 아이로부터 빼앗았다.

- a. [존이 그 책을 읽고 있던]
- b. [존이 [그 책을 읽고 있던 아이로부터] ]
- c. [존이 그 책을 [읽고 있던 아이로부터] 빼앗았다]

문장을 (4a)까지 읽었을 때는 최소 부착의 원리에 따라 “존이 그 책을 읽고 있던”이 하나의 절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술어 “읽고 있던”에 붙은 표지 ‘-고’는 관계절의 표지 혹은 명사절의 표지일 가능성이 있으나 최소부착원리에 의하여 명사절로 처리한다. (4b)에서 “아이로부터”가 등장하면, (4a)의 재분석이 필요하다. “아이”는 “그 책을 읽고 있던”의 머릿명사로 판단되므로 “그 책을 읽고 있

- 
- 4) 구조결정주의에 따르면, 구문 분석의 과정에 관여하는 문법적 관계들 중 지배관계(dominance)와 선행관계(precedence)가 미리 결정되며, 최초의 구조 결정은 단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Gorrell 1995).
  - 5) 구조적 중의성을 가지는 한국어 문장 96개를 자가 진단 방식으로 실험하여 문장의 난이도를 측정하였고, 피실험자 집단의 80%가 어려운 문장이라고 체크한 경우 길 혼동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세한 실험 방법은 Suh(1994: 6-9)를 참고하기 바란다.
  - 6) (4)의 예문은 Suh(1994: 224-50)에서 인용하고 정리한 것이다.

던”이 관계절로 분석되어 (4b)와 같은 구조로 재분석된다. 즉 “아이”의 하위 구조로 조정된다. (4a)에서 (4b)로의 이동은 동사구인 “그 책을 읽고 있던”을 관계절로 절 내림하는 것이므로 인지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4c)에서 “빼앗았다”를 읽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빼앗았다”는 논항으로 행위자(agent)와 대상(theme)이 필요한데, (4b)와 같은 문장 구조로는 대상이 되는 논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절의 구조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관계절의 목적어였던 “그 책을”을 다시 주절에 속한 목적어로 절 올림해야 한다. 이 과정은 지배 관계의 수정을 야기하므로 길 혼동 현상이 발생한다.

한국어는 내포절이 상위절의 원편에 생성되는 구조이므로 상위절의 일부 구문 분석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절의 구문 분석이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그 과정에서 생략이나 공백이 있는 내포절을 분석할 때 길 혼동 현상으로 인하여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3. 내포절의 구조적 중의성과 번역 전략

#### 3.1 주어 부재형 안긴 절과 번역 문제

복문은 문장 내 절의 문법 관계에 따라 주절(main clause)과 내포절(embedded clause)로 나뉘며 주절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내포절이 주절의 서술어와 관계를 맺으면 부사절, 주절의 명사를 수식하면 관형절, 주절의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 하고, 인용절을 별도로 분류한다. 내포절의 기능적 분류와는 별도로, 본문에서는 내포절의 분포 위치에 따른 구문 분석의 중의성 문제를 다루므로 주절과 내포절의 관계를 주어와 서술어의 분포 형태에 따라 나누어 설명한다.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는 주절과 내포절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내포절은 주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언어의 유형적 특성으로 인해 생성 위치에 제약이 따른다. 한국어의 경우 내포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가능하다.

번호	내포절 구성
1-1	[S2 V2] S1 V1
1-2	[(S2) V2] S1 V1
2-1	S1 [S2 V2] V1
2-2	S1 [(S2) V2] V1

<표2> 한국어 내포절의 구성 유형

<표2>의 1-1과 1-2는 내포절이 주절보다 앞서 등장하는 경우이다. 내포절이 주격 관계절인 경우에는 1-2의 구조를 보인다. 2-1과 2-2는 내포절이 주절의 사이에 안겨 있다. 이러한 구성을 본문에서는 특별히 안긴 절(center-embedded clause)이라 부르겠다. 내포절을 구문 분석할 때는 내포절의 시작이나 끝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을 활용하여 나열식으로 입력되는 단어들의 구문 관계를 파악한다. 내포절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가 발달되어 있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내포절의 서술어 어미 형태를 통해 구문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포절의 내용이 끝나면 다시 주절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내포절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1과 같이 주어 반복되면 같은 층위에서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구문을 분리하여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2-2는 내포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내포절의 시작이 어디인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절의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내포절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다거나 복잡해지면 구문 분석의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한국어는 복문의 사용이 빈번한 언어이므로(윤승 2001), 구문 분석 과정에서 일시적 중의성으로 인하여 인지적 부담을 초래하는 내포절 구성에는 어떤 것이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시적 중의성의 대상으로 보일 만한 구조는 <표2>의 2-2구조인데, 주어가 생략된 내포절이 주절의 사이에 있으므로 주어 부재형 안긴 절로 부르고 이후 논의를 계속하겠다.

주어 부재형 안긴 절의 문제는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 불일치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문장 혹은 절의 기본 구조는 주어 한 개와 서술어 한 개이다. 이론적으로 복합문은 개수가 n개일 때 서술어의 개수도 n개여야 한다. 그러나 주

어 부재형 안긴 절은 표면적으로 주어보다 서술어의 개수가 더 많다.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주어를 읽으면 호응되는 서술어를 찾으려고 하고 서술어가 등장하면 주어 혹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따라서 서술어의 개수가 더 많은 문장을 읽을 때는 문장을 문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서술어의 주어 혹은 행위 주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문장 내에 있는 다른 주어와도 연결해보고 앞 문장에 등장했던 명사구들 중에서 찾으려고도 해보고 화자의 배경지식을 통해 추론해보려고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알맞은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올바른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어를 추론하는 과정이 빠르고 무의식적으로 진행될수록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 3.2 주어 부재형 안긴 절로 번역되는 영어 구조

주어 부재형 안긴 절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 구조는 크게 주격 관계절과 분사형 형용사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관계절의 경우부터 살펴보겠다. 관계절은 그 속성상 절 내에 문장성분이 부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계절 내에 생략된 성분은 관계절의 피수식어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주격 관계절이 주절의 중간에 삽입된 안긴 절의 형태로 나타나면 주어 부재형 안긴 절의 형태를 띠게 되므로 문장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영어는 안긴 절이 있는 구문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보다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의 빈도가 훨씬 높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어 부재형 안긴 절의 구조로 바뀌어야 하므로 인지적 부담이 높은 문장을 만들 위험이 있다(진실로 2007: 63). 관계절이 주절의 가운데에 삽입되는 구조가 관계절이 주절보다 먼저 등장하는 구조보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김영진 1981). 주격 관계절의 머릿명사가 등장할 때까지 주절의 주어가 관계절의 주어인 것처럼 분석되는 과정은 특히 길 혼동 현상을 야기하며 구문 분석의 오류를 야기한다. 예문 (5)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본다.

(5) [ST] [It was] Before The Times publicly revealed that it had printed  
 (S1 V1) S2 V2 S3 V3  
 scores of stories by an up-and-coming staffer who had conned  
 S4 V4(1)  
 his editors into using lies, fiction and plagiarized material.  
 V4(2)  
 (Toffler 2006: 125)

[TT] [이것은] <타임즈>가 거짓과 허구, 표절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편  
 S1 S2 V4(2)  
 집자를 속인 한 전도유망한 기자의 기사를 실었다고 공개적으로  
 V4(1) V3  
시인하기 전 이야기이다.  
 V2 V1  
 (김중웅 2006: 189)

(5)의 [TT]는 원문의 구조에 충실하게 번역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두 언어의 구조 차이 때문에 어순과 주어가 조정되면서 번역문은 한 눈에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되었다. [ST]는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가 비교적 일치한다. 그러나 [TT]에서는 서술어의 개수가 5개인데 표면화된 주어는 한 개뿐이며, 이 서술어의 주어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구문 분석 과정에서 길 혼동 현상이 나타난다. (5)를 (6)과 같이 도식화 하면 보다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6) [ST] S2+V2+[S3+V3+[S4+V4(1)+V4(2)]]

[TT] [S2+[[V4(2)+V4(1)+V3]+V2]+V1  
 ↓ □ ×  
 ∇  
 ∅+[S2+[∅+[∅+V4(1)+V4(2)]+V3]+V2]+V1  
 □ ○

(5)의 [ST]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가 대체로 일치하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다. 주절의 주술 구조는 생략되어 있지만 문단 전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V4(2)는 원문에서는 동명사로 사용되었으나 그 역할이 서술어와 같고 서술어로 번역되므로 서술어로 표기하였으며 V4(1)과 V4(2)의 주어는 S4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S4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며 실제 주어는 앞에 등장한 선행사 “an up-and-coming staffer”이다.

[TT]는 주어 부재형 안긴 절로 구성되었다. 어순의 특성상 S2가 등장한 뒤 주격 관계절의 서술어인 V4(1)과 V4(2)가 바로 오는데 이 때 이 서술어들이 안긴 절의 성분임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최소부착원리가 적용되어 S2와 V4(1,2)가 마치 서로 호응되는 주술 구조인 것처럼 분석된다. 그 결과 편집자를 속이고 거짓된 자료를 사용한 주체가 <타임스>라는 뜻이 이해하게 되는데, 관계절의 머릿명사인 “한 전도유망한 기자”를 읽은 후에야 V4(1)과 V4(2)의 행위 주체가 “기자”임을 인지하게 되는 재분석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이 길 혼동 현상을 야기한다. 주격 관계절의 서술어인 V4(1,2)의 주어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문법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상위절의 주어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되어서 예상치 못한 구조 분석의 오류가 잠시 발생하는 것이 이 번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분사는 명사 수식어나 분사구문으로 사용되며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사용하므로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명사의 수식어로 사용되는 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사는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관계에 따라서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사용될 수 있다. 현재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일 때 사용되고 과거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일 때 사용된다. 번역과정에서는 분사형 형용사가 서술어로 바뀌며 그 자체가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서술어 구조로 나타나는 일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분사는 주어 부재형 안긴 절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 국지적인 중의성의 대상이 된다.

(7)과 (8)은 원문의 분사가 주어 부재형 안긴 절로 구성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7) [ST] Then came the executioner, bearing a cup of crushed hemlock.

(Botton 2000: 7)

[TT] 이어서 사형집행인이 으깬 독미나라가 든 잔을 들고 나타났다.  
(정명진 2005: 65)

(8) [ST] . . . “a secondary school student or the parent of the student may request that the student’s name, address, and telephone listing not be released without prior written parental consent, and the local educational agency or private school shall notify parents of the option to make a request and shall comply with any request.”

(Thaler et al. 2009: 87)

[TT] . . . “중등학교 학생 혹은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사전에 작성된 부모의 서면 동의서 없이 는 배포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기관이나 사립 학교는 학부모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알리고 어떠한 요구에든 응해야 한다”

(안진환 2009: 140)

(7)과 (8)의 [TT]에서 밑줄 표기된 부분은 [ST]의 분사가 번역된 것이다. 두 [ST]의 분사들은 명사구 안에 존재하며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번역 후에 수동형이나 능동형의 서술어가 되어서 주어 부재형 안긴 절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주어가 없이 생성된 이 서술어들이 상위절의 성분과 호응을 이루는 것처럼 읽혀서 길 혼동 현상을 겪는다.

(7)에서는 [ST]의 과거분사 “crushed”가 뒤에 오는 명사 “hemlock”을 수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명사구는 문장의 주어나 서술어와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의미나 구조가 혼동될 일이 없다. 과거분사형 형용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가 있으므로 수동태 서술어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데, [TT]에서는 이 형용사를 능동태로 전환하여 “으깬”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 능동형이 더 자연스럽다는 기존 번역 규범에 충실하였다. 둘째, 해당 형용사를 그대로 수동의 의미로 번역하면 ‘으깨진’이 될 텐데, 이 때 ‘어지다’형의 피동형은 권장되는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나온 “으깬 독미나라” 자체는 문법이나 그 의미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두고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번역문에서 “으깬”은 길

이는 짧아도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으깬 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으깬”의 행위자는 생략된 형태로 봐야 한다. 이 문장은 즉 (9)와 같이 분석되어야 한다.

(9) 사형집행인이 [[ $\emptyset$  으깬] 독미나리가 든] 잔을 들고 나타났다. (O)  

  
\* $\emptyset$   $\neq$  사형집행인

(10) a. [[사형집행인이 으깬] 독미나리가 든] 잔을. . . (X)  


b. 사형집행인이 [[ $\emptyset$  으깬] 독미나리가 든] 잔을 들고 나타났다. (X)  

  
\* $\emptyset$  = 사형집행인

그러나 이 문장은 (9)와 같은 재분석 과정을 거친다. 능동태를 쓰면서 행위자를 생략하는 번역전략은 행위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앞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일반 주어라서 굳이 언급되지 않을 때 유효하다. 즉 생략된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인 “사형집행인이” 뒤에 바로 “으깬”이 오면 이 서술어의 특성상 이 둘을 서로 관련지어 (10a)와 같이 읽게 된다. 우연히도 ‘으깨다’라는 행위는 주절의 주어인 “사형집행인이”와 의미가 잘 어울리므로 (10a)와 같은 해석이 의미와 구조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분석인 것이다. 그러다가 “사형집행인이 으깬”은 관형절 표지“ -ㄴ”로 종결되는데, 이 관형절의 뒤에 온 명사구 “독미나리가”가 관형절의 머릿명사의 역할을 한다. 한편 이 주격 머릿명사의 서술어 “든” 역시 관형절 표지로 끝나므로 그 뒤에 오는 “잔을”이라는 명사구가 “사형집행인이 으깬 독미나리가 든”이라는 관형절의 머릿명사가 된다. 이 머릿명사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며 그 뒤에 “들고 나타났다”라는 서술어가 오면서 문장이 종결되어 (10b)의 구조로 재분석된다. “들고 나타났다”의 행위자, 즉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문장 구조를 (10a)처럼 이해하면 문장 서술어의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된다. 이 문장은 새로 시작되는 문단의 첫 문장이므로 이 문장의 앞에서 “들고 나타났다”의 생략된 주어들을 찾을 정

보가 없다. 따라서 “들고 나타났다”의 주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으므로 재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때 “들고 나타났다”와 호응을 이룰 수 있는 문장성분은 “사형집행인이” 뿐이므로 (10a)는 (10b)와 같은 재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형 집행인이”는 (10a)에서는 형용사절의 일부로 분석되었으나 (10b)에서는 문장의 주어인 것으로 수정되었다. 종속절에 속한다고 판단했던 성분을 보다 상위 구조에 속하는 성분으로 절 올림하면서 길 혼동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오독을 초래한다. 동일한 절에 속한다고 분석한 요소를 전혀 다른 절의 구성 성분인 것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문장의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올바른 구조로 재분석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10b)와 같이 “으깬”의 주어가 생략된 구조로 분석했다고 해도 누가 으깬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해당 문장의 앞뒤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의미가 완성된 구조로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다. 게다가 주절의 주어 “사형집행인이”와 형용사절의 서술어 “으깬”이 상식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의미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원문의 의도대로 구조를 분석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7)과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 (8)의 구문 분석 과정은 [TT]만을 다시 표기한 뒤 (11)을 통해서 설명한다.

(8) [TT] 중등학교 학생 혹은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사전에 작성된 부모의 서면 동의서 없이는 배포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11) a.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사전에 작성된] ... (X)

b.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사전에 작성된] 부모의 서면 동의서 없이는 배포되지 않도록... (X)  
? \_\_\_\_\_

c.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사전에 작성된 부모의 서면 동의서 없이는] 배포되지 않도록... (O)

(8)의 [TT]는 (11a-c)의 재분석과정을 거친다. (11a)에서, 주어 “...전화번호가” 뒤에 바로 서술어 “작성된”이 등장하는데, 이 두 어구는 의미 관계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절 안의 주술관계인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뒤에 등장하는 “배포되지 않도록”을 읽으면 이 서술어의 주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11b)와 같은 길 혼동 현상을 겪는다. 결국 (11c)의 올바른 구문으로 재분석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이 비효율적이다.

### 3.3 번역 전략

#### 3.3.1 어순 조정

주어 부재형 안긴 절에서 발생하는 길 혼동 현상은 기본 어순을 따르다가 우연히 인접하게 된 어구들 사이에 잘못된 부착 관계가 형성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부착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번역전략으로 3.2장에서 논의된 예문들을 중심으로 어순을 조정하는 전략을 대입해보겠다.

- (12) [TT1] <타임스>가 거짓과 허구, 표절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편집자를 속인 한 전도유망한 기자의 기사를 실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기 전 이야기이다.

(김중웅 2006: 189)

- [TT2] 거짓과 허구, 표절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편집자를 속인 한 전도유망한 기자의 기사를 실었다고 <타임스>가 공개적으로 시인하기 전 이야기이다.

(필자 번역)

- (13) [TT1] 이어서 사형집행인이 으깬 독미나리가 든 잔을 들고 나타났다.  
(정명진 2005: 65)

- [TT2] 이어서 으깬 독미나리가 든 잔을 들고 사형집행인이 나타났다.  
(필자 번역)

- (14) [TT1] . . . “중등학교 학생 혹은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사전에 작성된 부모의 서면 동의서  
없이는 배포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 .

(안진환 2009: 140)

[TT2] . . . “중등학교 학생 혹은 해당 학생의 부모는 사전에 작성된  
부모의 서면 동의서 없이 학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호가 배포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 .

(필자 번역)

(12-14)의 [TT]들은 문제가 되는 주어가 올바른 서술어와 호응하도록 주어의  
자리가 조정되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긴 절의 내용이 먼저 등장하게 되어  
서 상위절의 주어와 안긴 절의 서술어와의 잘못된 연결 관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어순을 조정하면 구조를 별도로 바꾸지 않아도 문장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어서 번역 노력이 적게 든다. 문법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상당  
한 창의성과 능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어순의 조정만으로 문장의 명확성이 확보된다면 권장할 만  
한 번역 방법이다.

그러나 어순 조정 방법은 서술어의 논항 관계나 주변 어구들의 의미에 따  
라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13)의 [TT2]는 어순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어색한  
데, 어순을 조정해도 “으깬”의 행위자가 부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  
다. (13)의 [TT]들에 사용된 “으깬”은 부착의 문제에 덧붙여 행위자의 부재라는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어순 조정과는 별도로 해당 서술어의 행위자 부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15)와 같은 경우 어순을 조정하면 서술어의 논항 관계가 변화되어 오역이  
된다.

(15) [ST] It was the classical imperial situation, where the places with  
natural wealth became victims of more powerful nations whose  
power came from that seized wealth.

(Zinn 2005: 551)

[TT1]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그 자원을 강탈함으로써 권력을 갖게 된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됐던 것이다.

(유강은 2008: 375)

[TT2] 그 자원을 강탈함으로써 권력을 갖게 된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됐던 것이다. (?)

(필자 번역)

[TT2]는 어순 조정 전략을 이용하여 구문을 바꿔 본 것이다. 그 결과 [TT2]는 어색한 정도를 넘어 오역에 가까운 문장이 되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상위절의 주어 주격 관계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이”가 서술어의 앞으로 자리를 옮겨 문장의 중간에 삽입된 형태가 되면 또 다른 주어 부재형 안긴 절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순을 조정하는 행위에 의미가 없다. 둘째, 상위절의 문장 구조가 어순의 변화에 제약을 준다. [TT1]은 ‘A가 B가 되다’라는 구조이다. 주어의 위치를 서술어에 가깝게 옮기게 되면 ‘B가 A가 되다’라는 구조가 되는데, 원문의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 관계가 되면서, ‘강대국들의 희생양이었던 지역이 나중에 천연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된’ 것처럼 오독하는 문제가 생긴다. 어순을 조정하는 전략은 주어 부재형 안긴 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안긴 절에 부착의 문제 이외의 여타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거나 서술어의 논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 3.3.2 통사 구조 조정

어순을 조정하는 방법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에는 통사 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통사 구조의 조정은 결국 인접한 어구들의 연결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태의 변환, 품사 변환, 문장 나누기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는 서술어와 인접한 어구들과의 의미 관계나 정보 흐름에 의해 판단된다.

(13)의 [TT]는 어순의 조정이 번역문의 가독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어순을 조정하더라도 서술어로 생성된 “으깬”의 행위자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13)의 [TT1]이 (16)의 [TT2]와 같이 번역된다면 구문 분석 과정의 문제

는 비껴갈 수 있다.

(16) [TT1] 이어서 사형집행인이 으깬 독미나리가 든 잔을 들고 나타났다.  
(정명진 2005: 65)

[TT2] 이어서 사형집행인이 으깨진 독미나리가 든 잔을 들고 나타났다.  
(필자 번역)

[TT3] 이어서 사형집행인이 독미나리액이 든 잔을 들고 나타났다.  
(필자 번역)

[TT2]는 서술어의 태를 전환하여 주절의 주어와의 관계를 차단하였다. 문제의 부분을 [TT2]와 같이 “으깨진”으로 번역하면 독미나리가 으깨진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되므로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으깨짐을 당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 대상이므로 “[사형집행인이 으깨진]”과 같은 잘못된 구조로 읽을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사형집행인이” 다음에 “으깨진”이 등장하면 이 둘을 서로 연결시켜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두 성분을 서로 다른 구조에 속하는 요소로 따로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마지막 서술어인 “들고 나타났다” 등장하면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던 “사형집행인이”를 이 서술어의 주어인 것으로 연결하고, 별도의 인지 처리 부담 없이 문장의 분석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으깨진”이라는 수동형의 표현은 번역자들의 선호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번역이 내키지 않는다면 [TT3]에서 보이는 대로 “독미나리액”이라는 명사구로 바꾸는 방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TT3]은 안긴 절이 명사구로 조정되어 단문이 되므로 구문 분석이 훨씬 단순해진다. 위의 번역 방법을 비교해 볼 때 원문의 구조와 의미에 가장 가까우면서 가독성이 높은 방법은 [TT3]이 되겠다.

### 3.3.3 문장 부호 사용

마지막 번역전략으로 문장 부호인 쉼표의 사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쉼표는



- b. <타임스>가, 거짓과 허구, 표절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편집자를 속인 한 전도유망한 기자의 기사를 실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기 전 이야기이다.

(19)는 원번역기 중에서 어구가 연결되지 말아야 할 지점에 쉼표를 찍은 것이다. 쉼표의 사용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에 잘못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구조의 명확성을 위해 쉼표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쉼표는 문법과는 상관없이 잠시 쉬어가는 휴지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문법적으로는 나열, 강조 등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통한다. 따라서 (19)에 사용된 쉼표는 사람에 따라 적절함의 정도를 다르게 체험하며 번역자의 성향에 따라서 주어 뒤에 쉼표를 찍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편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일반적인 번역전략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쉼표를 휴지의 기능으로만 해석한다면 (17)의 [TT]와 (19)는 전부 부자연스럽다. 한국어는 주어 뒤에서 끊어 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9a)처럼 문장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쉼표의 사용의 설득력이 더욱 떨어진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때 이 쉼표들은 나열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강조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결과 쉼표 앞의 단어들은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조된다. 한편 (19b)에서처럼 문장 내에 다른 용례로 사용되는 쉼표와 중복되어 나타나면 오히려 문장의 명료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듯 주어 부재형 안긴 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쉼표를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쉼표 앞의 성분을 강조하게 되거나 문장 내에 다른 쉼표가 이미 존재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결론

본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한 번역문의 구조적 중의성 문제를 제기하고 어순 조정과 통사 구조 변경을 통한 번역

---

7) 원문은 각각 (19a)는 (7), (19b)는 (5)를 참고할 것.

전략을 연구하였다. 영어 원문의 가독성이 높다하더라도 번역과정에서 한국어 규범을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하면 읽기 힘든 번역문이 된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는 구문 생성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구조적으로 명확성이 떨어지거나 중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번역문이 생성되기 쉬워 가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본고에서는 어순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구조인 내포절을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번역전략을 제시하였다.

내포절은 주절의 중간에 삽입된 안긴 절의 형태를 할 때 인지적 부담이 높은 문장 구성이 될 수 있다. 특히 주어가 생략되거나 번역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서술어로 인하여 내포절의 주어 개수가 서술어보다 적은 주어 부재형 안긴 절의 경우에는 재분석 과정에서 절 올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내포절의 중의성 문제는 구문 분석의 효율성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구성된 어순이 원인이므로 어순을 조정하여 구문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중의성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어순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주제구조 또는 논항구조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사 구조를 조정하여 구조적 명확성을 높이고 중의적 해석으로 인하여 오독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이상 구조적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는 영한 번역 구문의 유형과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번역전략들을 검토해보았다. 원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의 문제는 번역자가 문제로 인지하므로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번역 결과 발생한 구조적 중의성은 번역가가 감지하기 힘들다. 원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고 자신이 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 번역 텍스트의 구조적 중의성에 취약하므로 번역문에서 나타난 중의적 구문은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연구는 그간 번역가의 번역과정 연구에 집중되었던 인지언어학과 심리언어학적 논의를 독자의 번역 텍스트 수용 과정에 적용하고 중의성 해소의 관점에서 적절한 번역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가독성의 논의를 보다 정밀하게 이끌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문에서 제시된 중의적 구문의 유형이나 해소 전략이 번역과정에 적용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읽기 쉬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문법 및 문체와 관련된 여러 번역전략들의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고, 번역문을 되고하거나

평가할 때도 가독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글쓰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의 번역 교육에도 실용적 가치가 있다. 다만 연구 대상이 내포절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어 번역전략 적용의 일반화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구조적 중의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언어 현상들의 연구를 통해 번역전략들을 보다 체계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번역과정과 읽기 과정에 대한 탐구는 번역 결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결합하여 보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번역학 연구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정 (2000) 「중의성 사전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0: 407-27.
- 김영진 (1981) 『관계절의 첨가위치가 이해과정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석 (1991)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Mirror-image’, 『응용언어학』 4: 61-89.
- 박시현 (2001) 「중의성과 번역」, 『언어와 언어학』 26: 175-98.
- 성기철 (1992) 「국어 어순 연구」, 『한글』 218: 77-114.
- 윤 승 (2001) 『한국어 복합문 분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평현 (2008) 『국어의미론』, 서울: 역락.
- 임홍빈 (2007)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 인문논총』 22: 53-119.
- 정해갑 (2009) 「번역과 중의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번역학 연구』 10(2): 159-79.
- 조명한 외 (2004) 『언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성은 (2009) 『사고발화법을 통해 나타난 일-한 번역과정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진실로 (2007) 『담화의 정보흐름에 기초한 영한번역 전략』,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종선 (2007) 「한국어 기계 번역에서의 중의성 처리 연구」, 『국어학』 50: 241-67.
- Eco, Umberto (1979)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P.
- Gorrell, Paul (1995) *Syntax and Parsing*, New York: Cambridge UP.
- Hirst, Graeme (1987) *Semantic Interpretation and the Resolution of Ambiguity*, New York: Cambridge UP.
- Just, Marcel and Patricia Carpenter (1980) 'A Theory of Reading: From Eye Fixations to Comprehension', *Psychological Review* 87: 329-54.
- Smith, Donald. 1978. 'Mirror Images in Japanese and English', *Language* 54: 78-122.
- Suh, Sunki. 1994. *The Syntax of Korean and its Implications for Parsing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U of Maryland.

<분석자료>

- 김중웅 옮김 (2006) 『부의미래』, 서울: 청림출판. (Toffler, Alvin and Heidi Toffler (2006) *Revolutionary Wealth*, New York: Knopf.)
- 안진환 옮김 (2009) 『넛지』, 서울: 리더스북. (Thaler, Richard and Cass Sunstein (2009) *Nudge*, London: Penguin Books.)
- 유강은 옮김 (2008) 『미국민중사 2』, 서울: 도서출판 이후. (Zinn, Howard (2005)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rper Collins.)
- 정명진 옮김 (2005) 『젊은 베르테르의 기쁨』, 서울: 생각의 나무. (Botton, Alain de (2000)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 New York: PantheonBooks.)

[Abstract]

**Strategies for Processing Structural Ambiguity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Focusing on Center-embedded Clauses**

Won, Eunha  
(Singu College)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ambiguity which emerges in the process of English-Korean translation, and establishes translation strategies resolving the problems based on a psycholinguistic perspective. As word orders and branching directions are different between English and Korean, structurally ambiguous phrases can be produced as result of English-Korean translation.

Subjectless center-embedded clauses, in particular, are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of reversed word order in translating process. Word orders of these structures pose a problem of conflicting with immediacy and simplicity principles. Processing these structures is slow and laborious when the absence of a subject makes the sentence ambiguous.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wo translation strategies are proposed. First strategy is to rearrange word orders based on the fact that Korean word order is relatively free. The other is to adjust syntactic structure. These strategies are effective methods for eliminating ambiguous regions, and enhancing the readability and accuracy of the target text.

▶ Key Words: structural ambiguity, garden-path, center-embedded clause, word order, English-Korean translation.

원은하

신구대학 관광영어과 강사

boi999@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